150만 독자가 손꼽아 기다려온 그 두 번째 이야기

공지영 에세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2



2권 30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우리는 예상보다 자주 틀리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른을 견디는 딸에게 보내는 열두 편의 편지

개정판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1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네 날개를 맘껏 펼치기를"

스무 살을 맞은 딸에게 전하는 스물네 편의 편지

1권 328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삭막한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는 공지영 에세이



상처 없는 영혼

28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고통스러운 생의 한 단면에서 벼랑인 줄 알면서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의 기록

작가로서 성공의 길을 달리기 시작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힘겨운 일들을 건너면서 30대 초반에 쓴 고통과 방황의 기록이자, 그와 같은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300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고통의 시간을 책과 함께 견딘 작가가
J에게 보내는 고백의 편지

'J'라는 익명의 존재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에세이. 기형도의 「빈 집」, 자크 프레베르의 「이 사랑」 등의 문학 작품들을 매개로 치열한 자기 고백과 성찰을 보여주며 보다 너그럽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작품.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340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세상의 소란이 아닌 고독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대면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기까지, 순례의 시간들

2022년 가을에 떠난 순례의 여정 속에서 모든 미혹을 뒤로하고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새겨진 예루살렘 곳곳에서 마주한 깨달음을 비롯,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을 기록한 치열한 자기 성찰.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448쪽 | 신국판변형 | 양장본

1,200만 독자를 진정한 삶의 의미로 이끈
작가 공지영의 등단 30주년 문학 앤솔로지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 작가 공지영이 1988년 등단 후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정리한 문학 앤솔로지로, 작가가 직접 고른 365편의 문장들과 작가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엮은 등단 30주년 기념본.

채냄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www.hnedu.co.kr 하나에듀
전화 02-323-0663 팩스 02-323-0660

대한민국 1,200만 독자가 사랑한 작가

뜨거운 공감과 울림, 공지영 작품의 새 편집, 새 출발!

공지영



"사랑만이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우리가 서로를
견뎌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공지영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8년《창작과 비평》에 구치소 수감 중 집필한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1989년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다뤄 새로운 여성문학, 여성주의의 문을 열었다. 1994년에는 『고등어』『인간에 대한 예의』가 잇달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명실공히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작가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착한 여자 1·2』『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즐거운 나의 집』『도가니』『높고 푸른 사다리』『해리 1·2』『먼 바다』 등이 있고,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존재는 눈물을 흘린다』『별들의 들판』『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산문집 『상처 없는 영혼』『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1·2』『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그럼에도 불구하고』『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1·2』 등이 있다.

2001년 21세기문학상, 2002년 한국소설문학상, 2004년 오영수문학상, 2007년 한국가톨릭문학상(장편소설 부문), 2006년에는 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단편 「맨발로 글목을 돌다」로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2018년 『해리 1·2』가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다.

혼돈의 세상에 뜨거운 질문을 던지는 공지영 장편소설



먼 바다

276쪽 | 사륙판변형 | 양장본

첫사랑,
가닿지 못한 모든 사랑들에게 바치는 헌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 40년 만에 해후하는 그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지나간 시간과 기억, 사랑의 의미를 되짚는다.



해리

전2권 | 각권 280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끈질긴 취재와 집필로 일궈낸 1천만 독자의 감동!
등단 30년, 공지영 작가의 열두 번째 장편소설 『해리』

불의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정의 카르텔을 포착하고 맞서 나가는 약한 자들의 투쟁을 담은 소설.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진정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2018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선정



높고 푸른 사다리

400쪽 | 신국판변형 | 양장본

고통 끝에 이르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가톨릭 수도회의 젊은 수사가 사랑과 이별을 통과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며,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묻는 작품.

★프랑스·베트남 현지 출간



즐거운 나의 집

392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영영 행복은 없어"
작가 공지영이 수놓는 웃음과 희망의 속삭임

공주병 엄마, 책벌레 둥빈, 아홉 살 막내 제제. 그리고 이제 막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여고생 위녕이 삶을 정면 돌파하는 가족 성장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36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삶과 죽음, 죄와 벌,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묻는 작품

자살 시도를 반복하며 냉소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와 세상 밑바닥을 떠돌다 살인 죄목으로 사형수가 된 남자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원작소설
★태국·브라질 현지 출간, 러시아 출간 예정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408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고통의 시대에 몸부림친 이 땅의 청춘들
1983년, 그곳에서 들끓었던 뜨거운 젊음에 대한 이야기

군부 정권 시대에 광주민주화운동과 운동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시대의 아픔에 휘말린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신산하게 보여준 작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2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성적 차별과 억압,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을 넘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탐색한 작품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사회 전반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다.



고등어

360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시대를 아파했던, 그리고 여전히 '등이 푸른 자유'를 꿈꾸는
모든 청춘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담은 소설

'80년대 운동권'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들의 진정성을 통해 후일담 문학의 새 장을 연 소설.



착한 여자

전2권 | 각권 368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닿아서는 안 될 인연들로 인해 상처 입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은 '사랑'이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학력 및 남녀 차별 등의 사회문제 안에서 휘둘리며 살았지만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



봉순이 언니

30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보듬으며
묵묵히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송가(頌歌)

60, 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끝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봉순이 언니를 통해 성장한 짱이. 삶의 희망을 돌아보는 자전적 성장소설.



소설집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244쪽 | 신국판변형 | 무선본

"어쨌든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것은 운명이다"
이상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21세기문학상 수상작 수록

2011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맨발로 글목을 돌다」 외 다섯 편의 작품을 수록한, 상실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지영의 소설집.

★ 2017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